

손톱밀 규제, 거래세 폐지 공론화 등 갈수록 '존재감'

권용원 금투협 회장 취임 1년

공모 재간접펀드 50% 취득 등 자산운용 50개 시장규제 완화

금융투자협회의 존재감이 뚜렷해지고 있다. 황영기 전 금투협회장이 은행업권에 밀려 후순위로 치부되던 금융투자업권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의제로 주목받게 했다면 그 바통을 이어받은 권용원 회장(사진)은 '관(官)'과 주기적으로 협의하며 금융투자업권의 실무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증권업계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손실이 월공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성과를 거뒀고, 자산운용업계는 총 50개의 규제가 완화되는 등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서다. 해당 규제개선안은 금투협 자산운

용지원부가 총 20회의 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으고, 축약하는 1년여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결과물이다.

한재영 금투협 자산운용지원부장은 "이번 규제개선안은 '손톱 밀 가시 같은 규제'를 없애는 데 초점을 뒀다"며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면서 기대보다 많은 규제가 개선돼 만족스럽다"고 했다.

이번 규제개선안은 자산운용사가 더 좋은 상품을 출시하고,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최근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모 재간접펀드의 운용 보폭을 넓혔다. 공모 재간접펀드가 피투자펀드 집합 총수의 20%만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50%로 완화했다. 큰 규모의 공모 재간접펀드가 규제 때문에 수많은 펀드에 쪼개어 투자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계열사 등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경우 인수일 이후 3개월 내에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한했던 규정을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 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은 증권사가 공모에 실패한 증권 등을 계열 자산운용사에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까지도 '규제' 때문에 편입할 수 없게 되면서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가 공모 가격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해당 자산운용사는 수요예측 절차에서 가격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80%)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포함시킨 것도 주목할만 하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재간접펀드를 설계하는 것이 수월해졌고, 상장된 리츠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도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펀드의 경우 한 종목의 비중이 전체 자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 인덱스펀드의 위험평가액 한도를 ETF와 같이 순자산의 200%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고유 ETF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인덱스펀드 운용사가 ETF와 유사한 상품을 디자인할 수 있고, 고객 수요를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펀드 판매사가 일반투자자에게 자문을 해주고, 투자 성과에 연동해서 자문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 펀드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상으로 매수와 매도 시점이 중요하다는. 자문

사 등록을 한 판매사는 여러 자문을 통해 고객이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신동준 자산운용서비스본부 본부장은 "고객이 펀드에서 수익을 내면 판매사도 좋은,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투협은 권용원 회장이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자산운용사 비전 2030'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회와 논의 중인 안건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 회장은 "공모펀드시장 위축은 결국 국민의 재산 증식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공모펀드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가 강하다.

그는 "공모펀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전방위적 자본시장 세제개편 과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논의하는 과정의 우선순위는 없다"고 강조했다.

/손은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한국투자증권

스텝다운형 ELS 50억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4일까지 홍콩 H(HSCEI), 에스앤피500(S&P500), 유로스탁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형 'TRUE ELS 11630회'를 총 5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스텝다운 구조로 3개월마다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5% (3개월), 90% (6·9·12개월), 85% (15·18·21·24개월), 80% (27·30·33·36개월) 이상이면 연 5.21%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만기까지 상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초기준가의 52%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15.63%(연 5.21%)의 수익을 지급한다.

/김문호 기자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아카데미 개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공개형 생애자산관리 교육프로그램인 '100세시대 아카데미' 3월 강좌를 오는 19일과 21일 실시한다.

19일에는 세텍(SETEC) 컨벤션 1홀(학여울역 1번 출구)에서, 21일에는 NH투자증권 본사 아트홀(여의도역 3번 출구)에서 각각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이번 달 '100세시대 아카데미' 강좌의 주제는 '예금보다 나은 ETF 배당투자'와 '국내 부동산 침체기 대안, 글로벌 리츠 투자전략'이다. 참가신청은 NH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또는 모바일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매년 9.5% 성장...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IT 지원

(매출액 평균)

IPO 간담회

HYUNDAI AutoEver

내일까지 수요예측, 19·20일 청약 NH투자증권 주관 28일 상장 예정

현대차그룹의 현대오토에버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

현대차그룹의 IT서비스 기업 현대오토에버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계획을 발표했다. 공모가 밴드는 4만~4만4000원이며, 공모 희망가에 따른 공모자금 규모는 1404억~1544억원이다.

현대오토에버는 13, 14일 양일간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 19, 20일 청약을 진행한다. 상장 예정일은 오는 28일이며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지난 2000년 설립된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그룹의 전문 IT 서비스 기업이다. 그룹사 내에서 완성차, 철강, 건설, 금융 등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SI(시스



오일석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

/배한님기자

템통합·System Integration) 및 SM(시스템 운영·System Maintenance) 사업과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에 참여해 유럽, 러시아, 중국, 미국, 멕시코 등 현대차그룹 진출 국가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IT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현대차그룹의 중심 사업을 제조업 기반에서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서비스업으로 바꾼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의 변화를 위해 ▲스마트홈 시스템 HI-oT ▲커넥티

드카 보안서비스의 개발 ▲울산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를 시험 운영하는 등 현대자동차그룹 내 협업으로 사업영역의 폭을 넓히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매출의 91%를 차지하는 현대차그룹사내의 캡티브마켓(Captive Market)을 바탕으로 SI, SM 사업을 수행해 성장세를 유지했다. 매출액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연평균 9.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그룹 IT 표준화 및 통합사업인 'One-IT'를 통해 강력한 캡티브마켓을 기반으로 시너지와 수익을 낼 예정이다.

거래소, 상장폐지 유력종목 투자자 '주의보'

보고서 제출전 주식 매각 등 수법 공시 등 특이사항 발생기업 유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에게 주의할 것을 12일 당부했다.

이런 불공정거래의 주요 유형 중 하나는 한계기업의 주요 주주·임직원 등 내부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보유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하는 방식이다.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운 뒤 내부

자가 팔고 빠지는 경우도 있다.

불공정거래의 특징으로는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이 악화된 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임박해서 급변한다.

공시·언론 보도·사이버 게시물 관련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기업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분 구조가 갑자기 바뀌는 기업도 주의 대상이다.

내부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에

내부자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최대주주 등의 담보 제공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로 인해 경영권 분쟁(소송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또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거나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 비의법인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기업 등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금흐름이 나빠져 차입금 연체가 늘거나 보유자산을 처분하는 기업, 주식 관련 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하거나 계열사

에 대한 금전 대여가 늘어나는 등 재무건전성·기업 투명성이 의심스러운 종목도 피해야 한다.

소수의 증권사 지점 또는 계좌에 주식 거래가 집중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제기돼 투자주의의 증대 등으로 지정되는 기업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이상의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및 특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하길 바란다"면서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 추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이익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문호 기자 kmh@